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동

전문가 9명 참여 TF팀 구성... 내년 3월까지 운영 돌입

전북도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대비, 고군산군도 어촌마을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아름다운 섬 만들기 전문가 TF팀을 2018년 3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군산군도 어촌마을 관광명소화를 위한 아름다운 섬 만들기 전문가

TF팀은 전북도, 군산시, 화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 9명이 참여하여 6일 전북도청에서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사전회의에서는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TF팀 구성 취지·운영방안에 대한 설명 및 고군산군도 연

결도로내 어촌마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며, 차기 회의는 고군산군도내 어촌마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TF팀에서는 고군산군도 어촌마을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고군산군도 어촌마을 1개소를 선정하고, 사업효과분석 및 추진 시 대두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대근 TF팀장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볼거리·체험거리 등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를 통하여 한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방문 할 수 있도록 어촌마을 관광명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5일 오전 11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7년 제4차 전북도통합방위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민·관·군·경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 함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도내 환경오염 사업장 무더기 적발

특별단속 결과 39곳 중 29곳서 60건 위반행위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역 대형사업장 39곳을 특별단속 한 결과 29곳의 사업장에서 6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80t 이상, 폐수 배출량 2000㎡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원주군에 있는 한 업체는 유기물 함유량이 40% 이상인 유기성오수를 매립하면 안 되지만 매립 처리해 사법처리했다.

이어 군산의 한 사업장은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농축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사법처리 될 예정이다.

또 전주의 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상민 기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60건의 위반행위를 종목별로 보면 대기 32건, 수질 22건, 폐기물 6건이다.

이 중 사법처리(고발) 15건, 과태료 42건, 개선명령 3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출시설 미신고 5건, 방지시설 미가동과 회색처리 같은 부적정 운영 12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 폐기물 부적정 처리 3건, 변경신고와 자가측정 미이행 같은 기타 위반사항이 37건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 29곳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이 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5건 중 9건은 자체 수사 뒤 검찰에 송치했고,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상민 기자

文, 새만금 위원장에 이형규 교수 위촉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만금 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이형규(64·사진) 전주대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새만금 위원회는 새만금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소속 위원회다. 공동위원장 2명 가운데 한 명은 국무총리가 맡고, 다른 한명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위촉한 이 위원장은 전북 진안군 출신으로 행정고시(제



16회) 합격 이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총무과장,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등을 거쳤다.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공제회 이사장, 전북도 정부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공직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이 위원장은 또 제2기와 제3기 새만금 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 세계잡버리 유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새만금과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가 밝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년부터 2019년 12월4일까지 2년이다.

/뉴스스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 조성 '두팔 걷어'

제2차 투자심의위원회

올해 136개 기업 유치성과
일자리 5039개 창출 성과

사전 협약 체결한 4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지급키로 결정

전북도가 지난 4일 2017년도 제2차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투자협약을 체결한 4개 기업이 투자를 완료함에 따라 투자 기업에 대한 보

조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은 완주군 소재의 (주)아시아와 다산기공(주)은 도내 기존기업이 신설 투자했다.

또 익산시 소재의 한국신텍스제약(주)과 (유)동이식품은 타 시도 기업이 도내로 이전해와 총4개의 기업에서 약316억 원의 투자와 170여명의 고용이 이루어져 도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북도는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고용계수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전 투자협약에 따라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4개 기업에 약 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어려운 투자유치 여건 속에서도 2017년 11월말 현재 136개 기업을 유치, 8,603억 원의 투자와 5,03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업종별 유치기업의 수는 식료품 46개, 금형금속철강 27개, 자동차, 부품 19개, 기계장비 6개 등 순이며 이들 기업은 도 핵심 전략산업의 기존기업과 더불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성 기자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지역은 국가 산단이 조성된 익산과 군산, 김제, 완주 등이며 최근에는 정읍, 고창까지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올 해 대규모 투자기업 일진제강(주)의 투자유치로 도내 경기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렇게 유치한 기업들이 전북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써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체납차량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

전북도, 자동차 체납액 833억원... 강도높은 단속 예고

전북도는 12월 6일과 13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도내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그동안 독촉장, 문자발송, 전화폭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줄 것을 독려했으나,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833억원에 이르고 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과 차량과태료 체납 60일경과 30만원이상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에는 14개 시군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동원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화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가 체납세 자진 납부예시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